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관리

물은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이며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물을 전부의 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물은 환경청 산하에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생활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4대강 하천의 관리는 하천별로 나눈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데 영산강 환경청에서 섬진강과 영산강 하천을 관리한다.

섬진강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보존되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으며, 광주시 상수원으로 유입 이용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하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영산강물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로부터 유입되는 생활 폐수 때문에 오염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승촌보와 죽산보를 막아 물을 저장하고 있으나 고여 있는 물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물과 관련하여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영산강은 수질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영산강은 전국 5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이는 오염원 유입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영산강 본류 유량의 60% 이상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이며,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상 비점오염 부하가 높아 수질 관리 여건도 열악하다.

영산강의 수질은 최상류에서 광주시 경계까지(BOD 기준) 약 1급(Ib)~보통(III) 수준을 유지하며,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광주천 합류 이후 구간에서 약간 나쁨(IV)까지 떨어진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영산강을 지속해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승촌보와 죽산보 물관리와 이용에 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섬진강에서 취수한 물의 80% 이상은 유역 외부로 물을 공급함에 따라, 섬진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섬진강 본류로 더욱더 많은 유량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의 특산물인 재

첩 생산량의 감소가 유역 외 물 이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원으로서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여 사용해야 하는 통합 물관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통합 물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 물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며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영·섬 유역 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유역 내 물관리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영·섬 유역 물관리 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호남의 젖줄이며 전부의 재산인 섬진강과 영산강의 물관리를 잘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비중이 크다.

물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할 일이 많다. 물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환경청은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욱 창의력을 발휘해 선진국 물관리 체계를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社說

새 외교·안보라인에 거는 기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상은 정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정상회담에 확실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방한하는 시점에 맞춰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의 공개담화가 나온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건 부장관은 엘리스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함께 방한길에 올라 7일부터 사흘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전략 대화를 갖는 것을 비롯,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한반도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그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장기 교류를 위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인 북미 관계는 물론 역주행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리셋팅해서 본래의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지를 놓고 정교한 계획 짜야 한다. 수렁에 빠진 남북 관계를 먼저 복원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북미간 중재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뒤, 남북관계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선후 관계의 교통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Table with 2 column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for Honam Shinmun.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지문사전등록제'

우리나라는 매년 2만 건에 이르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교외 불나들이를 가는 5, 6월에 가장 많은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 12세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 대상은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신속한 신원확인 및 인적사항 조사를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치매환자나 지적·자폐 장애인의 사전등록율은 현저히 낮

다. 2018년 말까지 관내 치매환자 사전지문등록 대상은 총 5만 8,090 명이지만 이 가운데 16.6%인 9,661명만 접수됐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하여 실종자를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또 안전 Dream 인 터 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김지현/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것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